

## 唯物論 批評의 根據(二)

李灌鎔

### [二] 形而上學的 唯物論

形而上學的 唯物論의 二元論的 傾向을 보여주는 哲學은 西洋哲學思想에서 古代 以外에는 볼 수 업는 現象이니 『제모크리토스[데모크리토스]』(希哲 紀元前 四六〇-三六〇頃)의 原子論이 그 代表的 形態이다. 二元論的 唯物論 뿐 아니라 도모지 唯物論的 哲學으로 最初에 科學的 基礎 위에 成立된 것이 原子論임으로 우선 그 根本思想을 簡單히 紹介하고자 한다.(『랑계』의 『唯物論史』 參照)

(一) 『업는 것은 언제든지 업는 것이며 잇는 것은 업새버릴 수 업다. 모든 變化는 다만 部分의 結合과 分離에 不過한 것이다. 여기 無는언제든지 無라.』는 것은 아모 것도 업는 것에서 무엇이든지 생길 수 업다는 뜻으로 現存한 事物은 耶蘇敎의 魔術的 創造에서와 가티 우연히 存在하게 된 것이 아니며 永久히 存在를 繼續하여 온 것이라는 뜻이다. 同時에 存在를 □□하여 오는 事物이 우연히 消滅되어버리는 事例도 업슴으로 모든 質量的 變化는 한 事物을 構成하는 部分의 結合과 分離를 因한 現象에 不過하다는 뜻이다. 여기 近代物理學의 二大原則인 物質不滅則과 力의 恒存律이 明白히 認定되고 뒤에 將次 소개하라는 『質의 量化』도 여기 暗示되었다.

(二) 『무엇이든지 偶然히 생기는 것이 업고 모든 것이 一定한 原由(原因)와 必然的 關係로 생기는 것이다.』 여기 『原由』란 것은 『제모크리토스[데모크리토스]』의 말 『로고스』를 翻譯한 것으로 嚴格한 數學的 機械學的 法則에 依한 原因을 가리침이니 즉 모든 事變이 嚴格한 因果法則에 依하여 進行되는 것이요 決코 盲目的 偶然에 依하여 되는 것은 하나도 업다는 主張이다. 그러나 여기 注意할 것은 偶然 否認의 反面에는 반드시 必然 是認뿐이 아니요 目的意識의 是認까지도 意味할 수 잇는 것이다. 웨 그런고 하니 目的意識은 偶然을 培栽하는 까닭에 그러나 唯物論에서 主張하는 必然은 偶然이나

目的意識을 □히否認하는 것이다.

(三) 『原子와 空間밖에는 아무 것도 없고 그 以外の 모든 것은 □□뿐이다.』여기 『臆測』이란 것은 事實이 아닌 主觀的 幻想에 의한 幻想을 意識함이니 原子와 空間 以外の 모든 事物은 實在가 아니요 主觀的 幻想이라 함이다. 『세모크리토스』의 말에 의하면 『臆測에 잇서서만 달고 쓰고 칩고 빛이 잇는 것이요 眞想에 잇서서는 原子와 空間 뿐이다.』하였다. 이와 가티 모든 事物을 原子論으로 說明하는 것을 現代 自然科學에 잇서서도 原則上 뿐 아니라 適用 方面에서도 是認 안 하는 것이 업것만 다만 生物學界의 一派(新活力說)와 心理學者中 多數가 이 見解에 首肯하지 못하는 바이다. 假令 空氣의 振動이란 事變만은 原子論으로 說明할 수 잇다 하드래도 同一한 空氣의 振動이 主觀에 잇서서 音으로 되는 事變은 아주 充分한 說明이 업서서 唯物論이 여기 이르러 그 反對論에게 한 有力한 批評 論據를 주게 되었다.

(四) 『原子는 그 數에 잇서서 無限히 만코 그 形態에 잇서서 無限히 다르다. 無限한 空間에 永久히 墜落함에 잇서서 큰 原子는 速히 썰어지고 적은 原子를 □고 잇다. 이러케 생긴 □적 運動과 渦旋 運動이 곳 宇宙 形成의 端初이다. 이러케 생긴 無數한 宇宙가 或은 同時에 或은 繼承하여 形成되기도 하고 崩壞되기도 하는 것이다.』

(五) 『事物의 서로 다른 것은 原子의 數, 大, 形과 順의 다름에 起因된 것이요 原子가 質的으로 서로 다른 것은 아니다. 原子에는 『內的 狀態』가 업고 다만 『壓』과 『推』에 依하여 作用할 뿐이다. 『여기 모든 事物의 質을 量에 歸結식혀버리는 現代 自然科學의 一般的 傾向이 발서 認定되었다. 그러나 이 點에 잇서서도 唯物論 發展의 길에 한 障礙가 잇스니 즉 心理現象의 量的 說明이 이것이다. 心理現象에 잇서서는 質 뿐만이 關係되고 量은 생각할 수 업다는 主張이 充分히 說明되기까지는 이 原則이 科學的으로 成立될 수 업다는 것이다.』